

‘슈퍼매치’ 전북현대 · FC서울 K리그 개막전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전력대폭 보강 최강희 감독 “홈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12일 오후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개막전을 치른다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올 해도 다른 구단에 비해 훨씬 눈에 띄는 전력보강을 보여 우승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미드필더 김보경 K리그 신성 이종호, 검증된 전력지원인 고무열, 로페즈 등 모든 포지션에 고른 보강을 보이며 더블스쿼드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과 중동의 거대 자본에도 이동국 레오나르도 권순태 등 우승 핵심 선수들도 모두 지키는데 성공했다

전북의 수장 최강희 감독은 “홈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만큼 반드시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며 “첫 경기부터 빅 매치가 성사되어 설레고 오랫동안 K리그를 기다려온 팬 분들에게 승리로 보답 드리겠다”며 강한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개막전은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장 이후 최대 관중이 운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단은 12시에 오픈되는 경기장 게이트를 30분 앞당겨 11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이 오는 12일 오후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개막전을 치른다.

30분에 실시하고 일찍 입장한 팬들을 위해 킥오프 전 난타와 기점놀이 공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사와 전북구단은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편의를 위해 1994 버스노선과

셔틀버스를 확대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견인차 이동 및 퇴출로 신설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이철근 단장은 “이제 전주에서 축구는 단순 스포츠가 아닌, 전북 도민 모

두가 즐기는 하나의 축제가 됐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오셔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팬들의 경기장 방문을 독려했다

/김민근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선수단이 올해 첫 전국대회

인 제45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올해 입단한 국가대표 황선아(27세) 선수는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아쉽게 14대 15로 저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아쉬움을 달랬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김지연(28세), 황선아(27세), 최신희(25세), 양한나(20세) 선수는 과색이 짙어던 경기를 역전승으로 우승을 일궈내며 드라마를 연출했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 출전한 권영준(29세), 송재호(26세), 나종관(24세), 안성호(31세) 선수는 준준결승에서 광주서구청에 35대 4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45대 42로 역전시키고 준결승에서는 전남 해남군청을 접전 끝에 승리, 결승전에서 화성시청을 45대 41로 승리하며 남·녀 동반우승을 일궈내며 실업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 갔다

/익산=장영원기자

2016시즌 K리그 관중 300만명 동원 목표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오는 12일 개막하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6 목표 관중수를 300만명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300만명은 지난해 입장 관중인 212만644명보다 41.1% 증가한 수치로 목표 관중수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과 K리그 챌린지(2부리그)를 합산한 것이다

올해 K리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클래식 228경기, 챌린지 222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른다

클래식 경기당 평균 관중 목표는 1만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당 713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구단들은 관중 유치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즌티켓 판매 증대와 팬 스킴 강화,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과 관중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팬심 잡기에 나선다

/김민근기자

미네소타 박병호 첫 멀티히트...타율 0.313로 상승

3경기 연속 안타행진...6경기 2홈런 6타점 4득점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3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첫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센츨링크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연속 경기 홈런을 쏘아 올렸던 박병호는 시범경기 들어 처음으로 4번 타수에 배치된 이날 2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날 멀티히트 경기를 하면서 타율은 종전 0.231에서 0.313(16타수 5안타)로 상승했다 6경기 동안 2홈런 6타점 4득점 6삼진을 기록 중이다

박병호는 1회말 2사 1루서 상대 우완 선발 투수 잭 에플린을 상대로 첫 타석을 맞

았으나 삼진으로 물러났다

1-1 동점이던 4회말에는 두 번째 투수 제이크 톰슨을 상대해 3루수 방면 내야 안타를 때렸다 3루수 마이클 프랑코가 1루에 악송구를 던지자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2루까지 진루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후속 타자 에디 로사리오가 투수 직선타로 아웃된 뒤 2루 송구에 미쳐 귀루하지 못하면서 동반 아웃되고 말았다

박병호는 팀이 1-3으로 뒤진 6회말 2사 후 세 번째 타석에서도 톰슨에게 중전안타를 날렸다 이 안타로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박병호는 이후 대주자 오스왈도 아르시아와 교체됐다

미네소타는 이날 필라델피아 보다 안타수에서 10-8로 앞섰으나 타선의 응집력 부족과 카메론 랩에게 연타석 솔로 홈런을



얼어 맞으며 2-4로 패했다 미네소타는 11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를 갖는다

/김민근기자

이기홍 수영연맹회장 사의 표명

이기홍(61)(사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연맹 임원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10일 수영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조계중 중앙신도회의 회의실에서 시도수영연맹 및 한국대학수영연맹 전무이사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한 수영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하셨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수습한 뒤 떠나겠다는 말에 참석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2010년 1월 수영계 수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6년 2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를 내놓게 됐다

이 회장은 이르면 오는 18일 제주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의원총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전원 퇴진 안건이 상정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